



# Asian Oncology Nursing (2011~2017년)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분석: 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이혜영<sup>1</sup> · 김민경<sup>1</sup> · 서원진<sup>1</sup> · 이민진<sup>1</sup> · 허예린<sup>2</sup> · 김상희<sup>3</sup>

<sup>1</sup>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sup>2</sup>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sup>3</sup>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연구소

## Trend Analysis of Theory-based Research Published in Asian Oncology Nursing

Lee, Hye-young<sup>1</sup> · Kim, Min-Kyeong<sup>1</sup> · Seo, Won-jin<sup>1</sup> · Lee, Min-jin<sup>1</sup> · Heo, Ye-rin<sup>2</sup> · Kim, Sanghee<sup>3</sup>

<sup>1</sup>Severance Hospital,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up>2</sup>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up>3</sup>College of Nursing & Mo 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trends of theory-based research published in Asian Oncology Nursing (AON) from 2011 to 2017. **Methods:** We analyzed 22 theory-based studies taken from among the 232 studies published in AON for 7 years. We analyzed the framework developed by researchers, descriptive summaries of theory, keyword classification of nursing meta-paradigms, the generic character of the studies, and the type of research designs. **Results:** A total of 23 theories were applied in the 22 (9.5%) studies. 'Nursing' was the most prevalent field of study (34.8%). In the field of study of theory, nursing theory was the largest with eight (34.8%), and in the method of theory utilization, all 22 studies were theoretical applications 3 middle-range theories were most prevalent. In the keyword classification using meta-paradigm in nursing, we found 83 key words. Among them, 'Health' related key words were most frequent (53), followed by 'Cancer' keywords (13). **Conclusion:** AON has a high ratio of theoretical study compared to other journals, but the ratio is still less than 10%, which is still weak.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attention to, utilization of, application,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nursing theory should be necessary.

**Key Words:** Nursing Theory, Oncology Nursing, Cancer, Review

## 서론

2015년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5.8명으로, 214,701명의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다고 보고되었다.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모든 암의 발생률(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연평균 3.6%씩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최근 10년간 5년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7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10년 넘게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sup>1)</sup>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가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심장혈관 질병 다음으로 암이 주요한 원인이며 총 598,03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다.<sup>2)</sup>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고찰할 때, 암 정복과 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은 일 국가의 건강 이슈일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연구 주제인 만큼, 종양 관련 간호 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2001년 창간한 종양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JKON)는 이후, 학술심포지엄, 보수교육 시행, 우수 논문상 제정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종양간호연구를 활성화하고 실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11년 CINAHL database에 등재되고 2012년 Asian Oncology Nursing(이하 AON)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제학술지로 발돋움하였다. 창간 초기부터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암 환자 교육 상담에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등 암 관련 정책 수립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sup>3)</sup>

종양간호영역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의 논문을 살펴보면, 1997년 Lim과 Hong이 종양간호연구 중 실험연구

주요어: 간호 이론, 종양 간호, 암, 분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Sanghe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388 Fax: +82-2-2227-7743 E-mail: sangheekim@yuhs.ac

Received: Jan 25, 2019 Revised: Mar 15, 2019 Accepted: Mar 24,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25편을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시하였고<sup>4)</sup>, 1998년 Choi 등이 1980~1998년까지의 종양간호연구물 149편을 분석하여 종양간호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sup>5)</sup> 그 후 Chung 등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종양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경향 분석을 시행하였고,<sup>6)</sup> Oh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만 5년간의 국내종양간호 연구물을 분석하여 국내 종양간호연구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sup>7,8)</sup> 최근, Jun은 2010년에 종양간호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3개의 학술지를 비교 분석한 논문에서, 종양간호학회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학제 간 협력연구, 전이성 혹은 말기암이나 암 생존자 대상의 연구, 순수 실험연구, 질적 연구, 다변량분석기법 적용 연구 등의 증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sup>9)</sup> Kim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종양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140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종양간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sup>10)</sup>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성인간호학회지는 간호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이론 및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5.8%로 미미하였고,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의 간호행정학회지에서도 이론이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는 4.9%만이 이론적용을 하고 있어 간호관리학 분야에서는 이론적용이 더욱 침체되어있다는 결과를 얻었다.<sup>11,12)</sup>

종양간호분야는 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간호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타 간호분야에 비해 일찍 전문분야로 자리 잡아서, 종양간호연구는 간호 지식체 생성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sup>13)</sup> 종양간호학회지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들이 특정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한 연구 현황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hung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AON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간호연구 분야에서의 이론적 기틀 사용이 부족함을 강조하고 이론사용연구의 확대를 제안하였다.<sup>6)</sup> 이론적 기틀의 유용성은 양적 연구에서 검증 가능한 가설 설정, 실험 중재연구에서 외생 변수 파악 및 연구결과에서 논의의 방향 제시로 이야기할 수 있다.<sup>14,15)</sup> 간호이론은 간호연구, 실무까지 연결되는 다른 학문들과 차별화된 간호학만의 관점을 제시하고 연구 및 실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론적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확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ON에 게재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여 연구방법론 특성 측면에서 이론적 기틀의 활용 여부, 사용된 이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AON에 게재된 이론 기반 연구의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간호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AON에 게재된 모든 연구논문 중심으로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론을 적용한 논문을 본 연구팀이 개발한 분석틀에 의해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ON에 게재된 전체 논문 232편 중 이론을 적용한 논문을 전수 조사하여 추출한 이론적용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뿐만 아니라 개념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포함하였고 이론을 정의하지 않고 개념적 틀만 사용한 연구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 3. 연구도구

이론을 적용한 논문의 동향을 일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sup>11,12)</sup>에서 사용된 분석기준들을 선별하여 자료조사 틀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연구 분석 내용으로는 게재 년도, 연구자(제 1저자), 연구대상자, 종양 종류, 연구 장소, 주요어 별 메타패러다임(Metaparadigm), 표본 수, 연구심의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여부 및 연구설계를 도출하였다. 이론 기반의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이론 및 개념분석으로는 이론명, 이론가, 이론의 종류, 이론 활용 방식을 도출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5명의 연구자들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AON에 게재된 모든 논문 중 이론이 적용된 연구 22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연구리스트를 개발된 분석틀에 의해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된 내용은 연구자 2명씩 교차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Fig. 1).

## 연구결과

### 1. 논문의 이론 적용 현황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ON에 게재된 논문 232편을 조사한 결과 개념분석 및 이론적용 연구는 22편으로 추출되었다. 게재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1년 2편, 2012년 3편, 2013년 2편, 2014년 4편, 2015년 4편, 2016년 5편, 2017년 2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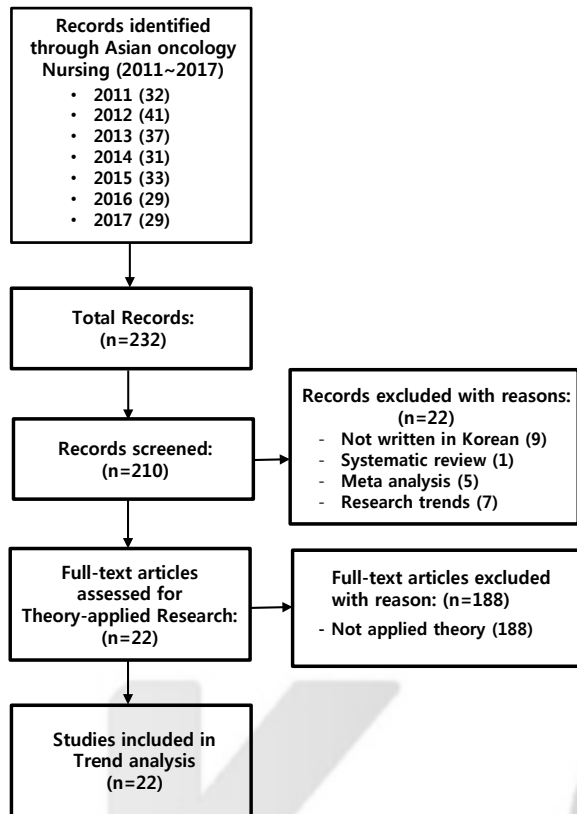


Fig. 1. Study flow diagram

## 2. 논문의 일반적 특성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제1저자, 중앙 종류, 대상자, 연구 장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자는 대학원생이 14편(6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간호사 5편(22.7%), 교수 3편(13.6%) 순이었다. 언급된 중앙 종류로는 유방암 5편(22.7%), 위암 2편(9.1%), 자궁경부암 2편(9.1%), 대장암 1편(4.5%) 순이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용어의 개념분석 등으로 언급된 중앙의 유형이 없는 연구는 8편(36.4%)이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이외의 대상자로는 환자 가족 4편(18.2%), 간호사 3편(13.6%), 이 밖의 대상자는 3편(13.6%)이었다. 대상자를 성별로 분류하였을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47.9%), 남성 1편(4.5%), 혼성 9편(39.1%)이었다. 진행된 연구 장소로는 병원이 16편(72.7%), 지역사회가 2편(9.1%), 대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 진행된 연구가 2편(9.1%)이었다(Table 1).

## 3. 논문의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방법을 연구의 표본 수, 연구설계, 수집방법, 통계 방법, IRB승인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구의 표본 수는 1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연구가 9편(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이하가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ies Used in the Asia Oncology Nursing Last 7 Years (N=22)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Researcher (1st author)	Professor	3 (13.6)
	Nurse	5 (22.7)
	Graduate student	14 (63.7)
Cancer (type)	Breast cancer	5 (22.7)
	Stomach cancer	2 (9.1)
	Colorectal cancer	1 (4.5)
	Cervical cancer	2 (9.1)
	Others	4 (18.2)
	None applicable	8 (36.4)
Study population (target)	Patient	10 (45.4)
	Patient's family	4 (18.2)
	Nurse	3 (13.6)
	Others	3 (13.6)
	None applicable	2 (9.1)
Study population (gender)	Female	10 (47.9)
	Male	1 (4.5)
	Both	9 (39.1)
	None applicable	2 (9.1)
Study on the place	Hospital	16 (72.7)
	Community	2 (9.1)
	Other facilities	2 (9.1)
	None applicable	2 (9.1)

편(9%), 100명 이상 200명 이하가 7편(32%) 200명 이상이 4편(18%)이었다. 연구의 유형은 양적 연구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조사연구가 10편(45%), 실험연구가 6편(27%)이었다. 질적 연구는 3편(13%)으로 모두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외에 개념분석 연구가 2편(9%), 경로분석 연구가 1편(4%)이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연구가 15편(63%), 생체징후를 활용한 방법 2편(8%),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건이 4편(17%), 의무기록을 활용한 연구가 3편(13%)으로, 자가 기입 설문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를 15편(68%)이 사용하였고 7편(32%)은 통계 프로그램을 언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통계학적 방법으로 기술적 통계를 사용한 논문이 13편(24%), t-검정(t-test) 10편(19%), 분산분석(ANOVA) 7편(13%),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7편(13%),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 correlation) 6편(11%), 교차분석(x2 test)이 5편(9%),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2편(4%)의 순으로 활용되었고 그 외 4편(7%)이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윤리를 위해 IRB승인을 받은 연구는 15편(68%)이었고 7편(32%)이 승인 받지 않거나 논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 4. 논문의 이론적용 현황

### (1) 적용된 이론 현황

2011~2017년의 232편 중 개념분석 및 이론적용 연구는 22편(9.4%)

이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이론의 수는 총 23개로 한 편의 연구가 2개의 이론을 사용하였다. 논문 제목을 통해 이론적용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였다고 명시한 연구는 1편(4.3%)으로 21편(95.5%)은 이론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론의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간호학이 8개(34.8%)로 가장 많았고 심리학 7개(30.4%), 사회학 5개(21.7%), 교육학, 공중 보건학, 기타 1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 (2) 이론의 종류

이론의 종류에서는 거대이론(Grand theory) 1개,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 2개가 3회, 근거이론(grounded theory) 1개가 3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개의 이론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가 3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스트레스평가 대처 이론(Coping& Stress theory), 불확실성 이론(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개념분석(Concept analysis method) 가 각각 2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이론은 1번씩 사용되었다. 이 중 심리신경면역모델(Psychoneuro-immunology model)은 심리학과 의학의 통합모델(integrative model)이다. 연구에 이론을 활용한 방식을 이론적용, 이론 개발, 이론분석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론적용이 22편(100%)으로 이론의 개발이나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 (3) 간호이론 적용 연구 현황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 8편을 분석해보았을 때, 거대이론(Grand theory)인 Orem의 자가간호이론(Self-Care theory)이 1편에 적용되었으며 중범위이론(Middle-range theory)은 Mishel의 불확실성 이론(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2편, Lenz 등의 불쾌증상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1편으로 총 3편(37.5%), 개념분석(Concept analysis)은 Walker와Avant의 개념분석방법(Concept analysis method) 2편(25%), 실무이론은 Choi와 Jun의 암 염려 경험(Cancer

worry experiences)와 Campinha-Bacote의 문화역량 모델(Cultural Competence Models)각 1편으로 총 2편(25%)으로 나타났다.

## (4) 이론 적용 연구의 주요어 분석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주요어들을 간호학의 4가지 메타패러다임에 맞춰 분석하였다. 각각의 연구에서 주요어들을 복수 제시하고 있어 22편의 연구에서 총 84개의 주요어를 도출하였다. '인간' 관련 주요어는 10개로 대부분의 항목이 수가 비슷하였다. '건강' 관련 주요어는 53개로 모든 주요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암이 13개(24.5%)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그 다음은 건강증진 8개(15.1%), 환자의 상태 7개(13.2%) 등이 있었다. '환경' 관련 주요어는 총 3개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호' 관련 주요어는 18개로 간호연구 6개(33.3%), 대체요법 4개(22.2%), 간호이론 3개(16.6%) 등이 분류되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7년간 AON에 게재된 논문 중 개념분석 및 이론 적용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전체 논문 232편 중 개념 분석 및 이론이 적용된 연구는 총 22편(9.5%)이었고, 전체 연구 중 간호 개념과 간호이론을 사용한 연구는 8편(3.4%)이었다. 논문의 주요어의 종류와 빈도를 파악하여 연구의 동향을 간략하게 파악하고자 추출된 22편의 주요어를 간호 메타패러다임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84개의 주요어에서 건강이 53개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 암, 건강증진, 상태(불안, 불확실성)이, '인간'영역에서는 '가족이 가장 많은 주요어로 나타나 종양간호에서 환자의 불안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암 환자에게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관련 주요어는 3개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Ji 등<sup>11)</sup>이 분석한 간호 행정학회에서는 환경이 가장 많은 주요어로 나온 것과는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암 환자는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암 예방, 회복, 사회적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므로 환경에 관련된 간호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1~2014년 동안 종양간호 학회지를 분석한 Kim 등<sup>10)</sup>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틀제시 연구를 4편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일기간인 2011~2014년에 11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 적용된 근거이론을 이론적 기틀로 보았으며, 이는 현재의 간호이론의 흐름을 분석한 IM과 Chang의<sup>16)</sup> 연구에서도 근거이론, 개념 개발, 분석도 이론적 기틀로 보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논문에서 적용한 간호이론 중 중범위이론인 Mishel의 불확실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ories Used in the Asia Oncology Nursing Last 7 Years (N=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resence of theoretical framework	Yes	1 (4.3)
	No	21 (95.5)
Number of theories used in a study	2	1 (4.3)
	1	21 (95.5)
Discipline of theory	Nursing	8 (34.8)
	Psychology	7 (30.4)
	Sociology	5 (21.7)
	Education	1 (4.3)
	Public health	1 (4.3)
	Other	1 (4.3)



Table 3. Descriptive Summary of Studies Guided by Theories

(N = 22)

No.	Author, year	Theory name	Theorist	Scope of theory	Discipline	Theory application method
1	Lee EJ, et al. 2011	Health belief model	Becker, 1974		Public health	Application
2	Han HJ, et al. 2011	1) PIM 2) CST	1) Ader & Cohen, 1975 2) Lazarus & Folkman, 1984		1) Psychology 2) Psychology	Application
3	Ko HK, et al. 2011	Self- efficacy theory	Bandura, 1986		Psychology	Application
4	Han MS, et al. 2012	Gate control theory	Melzack & Wall, 1965		Psychology	Application
5	Byun HS, et al. 2012	Concept analysis method	Walker & Avant, 1995		Nursing	Application
6	Lee SY, et al. 2012	Theory & practice of therapeutic massage	Mark F. Beck, 1988		Others	Application
7	Kim YH, et al. 2013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e)	Molenda M, 2003		Education	Application
8	Kim Y J, et al. 2013	Grounded theory	Strauss & Corbin, 1990	Grounded theory	Sociology	Application
9	Kim H, et al. 2014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Lenz et al., 1997	Middle-range theory	Nursing	Application
10	Choi EJ, et al. 2014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offman, 1971		Sociology	Application
11	Tae YS, et al. 2014	Grounded theory	Corbin & Strauss, 2007	Grounded theory	Sociology	Application
12	Kang JC, et al. 2015	Stress theory	Lazarus & Folkman, 1984		Psychology	Application
13	Kim J, et al. 2015	Concept analysis method	Walker & Avant, 1995		Nursing	Application
14	Lee EM, et al. 2015	A model of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Weinstein & Sandman, 1992		Psychology	Application
15	Choi KS, et al. 2015	Cancer worry experiences	Choi & Jun, 2013	Practice	Nursing	Application
16	Choi YS, et al. 2016	Coping & stress theory	Shelley E. Taylor, 2000		Psychology	Application
17	Lee Y, et al. 2016	Grounded theory	Strauss & Corbin, 1990	Grounded theory	Sociology	Application
18	Jean MK, et al. 2016	Self -care theory	Orem, 1995	Grand-theory	Nursing	Application
19	Choi KS, et al. 2016	Cultural competence models	Campinha-Bacote, 2002	Practice	Nursing	Application
20	Hwang H, et al. 2016	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et al., 2004		Sociology	Application
21	Kim KO, et al. 2017	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Mishel MH, 1988	Middle range theory	Nursing	Application
22	Nam K, et al. 2017	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Mishel MH, 1981	Middle range theory	Nursing	Application

PIM= Psychoneuro-immunology model; CST= Coping &amp; stress theory.

이론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이 전반적인 삶에 존재하면서 질병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수라 대부분 질병을 가진 성인들이 질병 관련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정확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

문에 불확실성 평가 도구를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Nam 등은 Mishel이 개발한 불확실성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전립선암 수술 환자의 불확실성, 불확실성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신-심리적 중재

**Table 4.** Keyword Classification by Nursing Meta-paradigm (N = 22)

Variables	Categories	n (%)
Human being*	Total	10 (100.0)
	Family	3 (30.0)
	Aged man	2 (20.0)
	Female college student	2 (20.0)
	Nurse	2 (20.0)
	Survivor	1 (10.0)
Health*	Total	53 (100.0)
	Cancer	13 (24.5)
	Health promotion	8 (15.1)
	State-Anxiety, Uncertainty, etc	7 (13.2)
	Stress, pain, depression	4 (7.5)
	Symptom	3 (5.6)
	Quality of life	3 (5.6)
	Treatment, surgery	3 (5.6)
	Knowledge	2 (3.7)
	Human needs	2 (3.7)
	Self-care	2 (3.7)
	Experience	2 (3.7)
	Physiology	2 (3.7)
	Self-efficacy	1 (1.9)
	Survivorship	1 (1.9)
Environment*	Total	3 (100.0)
	Support	2 (66.6)
	Oncology ward	1 (33.3)
Nursing*	Total	18 (100.0)
	Nursing research	6 (33.3)
	Application of replacement therapy	4 (22.2)
	Theory (nursing theory, others)	3 (16.6)
	Patient education	2 (11.1)
	Oncology nursing, nursing practice	2 (11.1)
	Competency	1 (5.6)

\*Multiple responses.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sup>17)</sup> Kim 등은 Mishel 이 개발한 불확실성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 암 환자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노인 암 환자의 삶의 질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나 의료인 지지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낮추어 줄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sup>18)</sup> Kim 등은 Lenz 등이 개발한 불쾌증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증상경험과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적 요인이 증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쾌증상이론의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sup>19)</sup>

Jeon 등은 Grand theory인 Orem의 자가간호이론을 근거로 위암 수술 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도구를 개발하여 위암 수술 환자 자가 간호 수행 사정 및 간호중재의 평가에 활용하여 간호실무와 간호연구에 기여하였다.<sup>20)</sup>

실무이론인 암 염려 개념은 2005년 전후 미국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드물게 등장한 개념으로, 아직 이론적 틀이 잘 구축되

지는 않았다.<sup>21)</sup> Choi와 Jun은 대장암 환자와 가족에 암 염려 경험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으며,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암 염려 간호교육 프로그램(RCW-FM (nursing educational program for reducing cancer worry of family member, RCW-FM))을 발전시켜 교육 프로그램이 암 염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sup>21)</sup>

3편의 질적 연구가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Struss와 Corbin에 의하면 근거이론은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sup>22)</sup> Tae 등은 종양전문간호사의 직무경험 연구를 통하여 종양전문간호사의 직무경험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전략에 의한 결과들을 규명하였다.<sup>23)</sup> Lee는 혈액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배우자가 돌봄과 지지체제로 환자에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간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보호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지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4)</sup> Kim 등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질병 경험을 고찰하여 청소년 암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성숙된 자아로 살아가도록 전인적이고 질적인 간호중재개발을 하도록 제언하였다.<sup>25)</sup>

22편의 연구 모두 이론을 적용한 연구로, 이론의 분석, 개발 연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용 연구의 동향 고찰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연구의 변화, 발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수가 적어 간호이론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종양 간호연구에서 독자적인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보다 타 학문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많은 것은 종양간호학이 빠르게 변화하는 암치료의 특성에서, 어떤 현상을 간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뿐 만 아니라 타 학문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그 관점을 수용하려는 포용력이 넓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독자적인 종양간호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양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종양간호에서 특성에 맞는 간호이론과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적용된 이론은 간호이론을 포함하여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 발전된 것들이었으며, 한국에서 개발된 간호이론은 없었다. 간호이론은 타 학문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간호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외국의 철학과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종양간호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한 간호이론의 정립과 개발을 위해 이론 기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종양 간호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결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AON에 게재된

232편의 연구논문 중 이론기반 연구논문 22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이론의 연구 적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론 기반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고 AON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소수의 연구에서만 이론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연도별로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론 적용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문의 이론을 간호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현대의 통합적 학문 모델에 맞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ON의 특성상 의학의 발전이 빠르게 적용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기초한 연구가 약 10%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AON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추출한 논문의 수가 적고 모든 논문이 이론을 중재에 적용한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간호이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이론 기반 논문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비록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론을 다시 연구에 적용하여 실무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간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이론 기반의 연구의 확대를 강조하고 AON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려 한다. 첫째, 간호학 분야에서 간호이론 기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지 차원에서 이론적 기틀의 적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론기반의 간호연구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이론을 명확히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의 간호연구자들이 다양한 간호이론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과 같은 간호연구자 양성과정에서 간호이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실무현장에서 한국 문화에 맞는 간호현상을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간호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간호이론과 관련된 전문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종양간호의 경우 빠르게 전문분야로 인정 받은만큼, 종양간호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제도구축을 통해 간호이론 및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후 간호이론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 ORCID

이혜영 orcid.org/0000-0003-0787-6198  
 김민경 orcid.org/0000-0003-3948-8026  
 서원진 orcid.org/0000-0002-2410-6104  
 이민진 orcid.org/0000-0002-4546-6088  
 허예린 orcid.org/0000-0003-1063-2661  
 김상희 orcid.org/0000-0002-9806-2757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5 annual report: cause of death [Internet].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Accessed October 24, 2018].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Leading causes of death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chs/fastats/lcod.htm> [Accessed October 24, 2018].
3.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Titl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kons.or.kr> [Accessed October 24, 2018].
4. Lim SO, Hong EY.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5-1997.2. J Nurs Acad Soc. 1997;27:857-70.
5. Choi SH, Nam YH, Ryu EJ, Baek MW, Suh DH, Suh SR, et al.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0-1998. J Korean Acad Nurs. 1998;28:786-800.
6. Chung BY, Yi MS, Choi EH.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Oncology Nursing. J Korean Oncol Nurs. 2008;8:61-6.
7. Oh PJ.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in Korea: 1998-2003. J Korean Oncol Nurs. 2003;3:112-21.
8. Oh PJ.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in Korea: 2003-2008. J Korean Oncol Nurs. 2010;10:80-7.
9. Jun M, So HS, Choi KS, Chung BY, Ryu E, Lee D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ree nursing journal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J Korean Oncol Nurs. 2011;11:163-70.
10. Kim SH, Kim MY, Kim SH, Kim HK, Lee I, Lee J, et al. Trends of studies published in Asian Oncology Nursing, 2011~2014. Asian Oncol Nurs. 2015;15:114-22.
11. Han NK, Kim S, Kim MS, Kim JG, Kim CH, Choi SH. Trend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for 5 years (2010~2014): focused on usage of nursing theories. Korean J Adult Nurs. 2015;27:527-36.
12. Ji H, Hong S, Jeong YR, Lee KH. Analysis of theory-applied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7~2016). J Korean Acad Nurs Adm. 2018;24:130-8.
13. Im EO, Chang SJ. Current trends in nursing theories. J Nurs Scholarsh. 2012;44:156-64.
14. Nam K, Tae Y, Kim C, Lee S. Influence of uncertainty and uncertainty appraisal on quality of life in prostate cancer patients after prostatectomy. Asian Oncol Nurs. 2017;17:45-54.
15. Kim KO, Kim JA. Influences of uncertainty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cancer patients. Asian Oncol Nurs.

- 2017;17:108-87.
16. Kim H, Kim S, Lee H, Oh S. Factors affecting symptom experiences of breast cancer patients: based on 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Asian Oncol Nurs*. 2014;14:7-14.
17. Jeon MK, Park GJ. Development of a self-care performance scale for patients with stomach cancer after gastrectomy. *Asian Oncol Nurs*. 2016;16:67-74.
18. Cho EJ. Path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women's embarrassment undergoing Papanicolaou tests for uterine cervical neoplasms screening. *Asian Oncol Nurs*. 2014;14:162-72.
19. Corbin JM, Strauss A.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 Sociol*. 1990;13:3-21.
20. Tae YS, Kwon S, Lee YS. The job experience of oncology nurse specialists. *Asian Oncol Nurs*. 2014;14:236-48.
21. Lee Y, Tak Y. Experiences of spouse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finding a way to get out of the endless tunnel. *Asian Oncol Nurs*. 2016;16:46-57.
22. Kim YJ, Kwon HJ.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suffering from cancer: breaking out of the withdrawn ego. *Asian Oncol Nurs*. 2013;13:304-12.

K C I